

과수 화상병·돌발해충 방제 주력

익산시, 7000만원 투입 방제약제 공급 등 나서

익산시가 과수 화상병과 돌발해충 방제에 주력한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이날 시청 기자실에서 신성룡 농업기술센터 소장 주재로 정래브리핑을 갖고 "과수원에 피해를 주고 있는 과수 화상병 등 방제를 위해 7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방제약제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시는 과수 화상병과 돌발해충 방제를 위해 '병해충 예방·방제단'을 구성·운영한다. 예방·방제단은 농작물에 발생하는 일반·외래·돌발·검역병해충 등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또 과수 화상병, 가지검은마름병, 자두곰보병과 같은 법정전염병을 예방·차단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돌발해충 밀도를 낮추기 위해 어린 해충 활동이 시작하는 5월부터 해충이 성장해 산란하는 8월까지

10일간 공동방제 기간을 설정해 방제 활동을 펼친다. 이 기간 시는 공원지역에 대해서는 도로공원과에서, 농경지 주변 산림지역은 산림과에서 각각 방제활동을 펼친다. 과수농가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해 방제활동을 지원한다. 외국에서 유입돼 사과와 배에서만 발생하는 화상병은 지난 2015년 경기도 안성과 충남 천안, 충북 제천 등에서 최초 발생해 162여명의 사회·경제적 피해를 입혔으나 익산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익산=장인천 기자

그러나 꽃매미와 갈색날개매미충 등의 돌발해충이 지난 2013년 익산지역에서 발생해 산림과 농경지, 과실수 등에 피해를 입혔다가 2015년을 기점으로 발생이 감소하고 있다. 현재 익산지역의 꽃매미 등의 밀도는 30%이하로 감소한 것으로 농업기술센터는 파악하고 있다. 신성룡 소장은 "화상병과 돌발해충에 대한 적기 방제로 이들 질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고품질의 과수가 생산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의회가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를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했다.

군산시의회, 회계연도 결산 검사위원 위촉

정길수 의원 등 5명 선임
26일 시의회에 따르면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대표위원으로 군산시의회 정길수(4선, 무소속) 의원이 선임됐으며 오재관(오재관세무회사무소), 박종훈(가교회계사무소), 이장식(前 자치행정국장), 김영화(前 회계과장) 등 총 5명이 선임됐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매년 전년도 군산시 예산집행의 결산 정리와 함께 세금을 사용한 사업에 대한 적법성과 투명성을 평가하고자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201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다음달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진행되며 2018 회계연도 군산시 세입세출, 명·사·계·속·비 이월, 채권·채무, 재산·기금, 금고에 대한 결산 후 군산시에 검사 의견을 제출하게 된다. 김경구 군산시의회 의장은 이날 위촉식에서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당초 목적에 맞게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됐는지 결산검사위원 여러분이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꼼꼼히 살피고 군산시의 행정이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정길수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위원들과 힘을 합쳐 2018 회계연도 예산을 얼마나 적법하고 공정하게 집행했는지 검사할 뿐만 아니라 군산시가 견전한 재정 기틀을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결산검사위원은 검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감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감사의견서가 첨부된 결산서를 5월말까지 시의회에 제출한다. 6월에 예정된 제1차 정례회 동안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된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전국 최초 '짬뽕특화거리' 추진

군산을 찾는 관광객들이라면 한번쯤은 다녀가는 필수코스라 자리매김해 전국적인 유명세를 타고 있는 짬뽕을 소재로 한 짬뽕특화거리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지역민의 특색

과 음식문화관광 도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국비와 시비 포함 예산 15억원을 들여 사업계획 수립 및 원가 분석용역 중이다. 시에 따르면 근대문화역사거리 주변 동명길, 장미길 등을 짬뽕특화거리로

선정함에 따라 입점할 10개소를 오는 27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선정자적은 군산시에 소재한 중화요리 운영 영업자 또는 중화요리 창업 희망자, 업종전환을 고려하는 영업자

이며, 타 지역 영업자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시는 짬뽕 특화거리에 도로 경관정비 및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음식점 점주를 대상으로 하는 경영컨설팅 친절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짬뽕 페스티벌을 개최하고 맛 지도 제작, 키오스크 설치, SNS 등을 활용해 짬뽕특화거리를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주민 편의 향상 위해 시내버스에 공공 와이파이 구축

익산시가 주민 편의 향상에 주력한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공공 와이파이(WiFi)서비스를 구축한다. 시는 익산지역 전체 시내버스 164대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해 시민 편의를 도모한다. 이를 위해 지난 20일까지 전체 버스 중 60대에 와이파이 구축을 완료해

운영 중이다. 또 오는 7월까지 모든 버스에 구축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1차 서비스가 적용되는 시내버스는 100번, 101번, 102번, 104번, 107번, 108번, 109번, 300번 버스 등 총 8개 노선 운행 버스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개인 휴대폰 무선 네트워크 설정에서

PUBLIC WIFI@BUS~에 접속해 고 품질 기가급(Gbps) 속도의 무선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가계통신비 부담해소와 고품질 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해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공시설 등에 공공와이파이 존을 지속적으로 확대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군산시, 공동육아나눔터 개소

군산시가 영유아 자녀 돌봄 품앗이와 초등돌봄 활동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를 26일 개소했다. 지역에서 처음 여는 '공동육아나눔터'는 여성가족부의 '신한금융그룹 협력 공동육아나눔터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5천만원을 지원 받아 늘푸른 도서관 1층에 마련됐다. 육아나눔터에서는 ▲창의아트 미술놀이 ▲포레 자치놀이 ▲어린이신문기사 토론활동 ▲보드게임 ▲숙제 및 생활지도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시는 육아나눔터를 통해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방과 후 안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해가죽화 되면서 약화된 가족돌봄 기능을 보완하여 부모의 육아부담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지역주민 대상 찾아가는 재난안전교육 실시

더불어 쾌적한 안전도시 군산시가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함께 찾아가는 시민대상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교육은 김임준 시장의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각종 재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재난 및 안전사고에 시민 스스로가 신속하게 대처 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24개 읍면동의 주민, 이·통장, 주민자치위원이 교육 대상이다. 3월부터 7월까지 매월 읍면동 이동장 회의시간에 자체적으로 실시된다. 또 ▲재난의 개념 및 환경변화에 따른 재난발생사례 ▲시기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재난 및 안전사고 대처



군산시가 시민대상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요령과 함께 '안전신문고'와 '안전디딤돌' 앱 활용 방법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재난의 사전대비가 무

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재난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인구감소 대응 인구정책위원회 출범

군산시가 인구감소를 막고 인구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산시 인구정책위원회를 출범하고 26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부시장 등 위원 15명과 관련부서장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직 위원들에 대한 위촉장 수여에 이어 군산시 인구현황 및 중점 시책에 대한 총괄보고로 이뤄졌다.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국장급 관계공무원 6명, 시의원 및 각 분야별 전문가 8명 등 총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군산시 인구정책 수립과 시책 발굴 및 제안, 인구정책에 대한 조정, 평가에 관한

문과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시는 올해에도 수요자 관점의 인구정책 발굴과 시민의견 수렴을 위해 아이디어 공모 및 시민토론회를 강화하며 신규 사업으로 대화생과 함께하는 군산시 탐방투어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승복 부시장은 "인구감소는 지역 실정에 맞는 시책발굴과 차별화전략을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구정책 위원회와 함께 상시적인 시민소통 구축을 위해 인구정책 시민참여단도 구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군산=김정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신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 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 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